

공군 에어쇼팀 블랙이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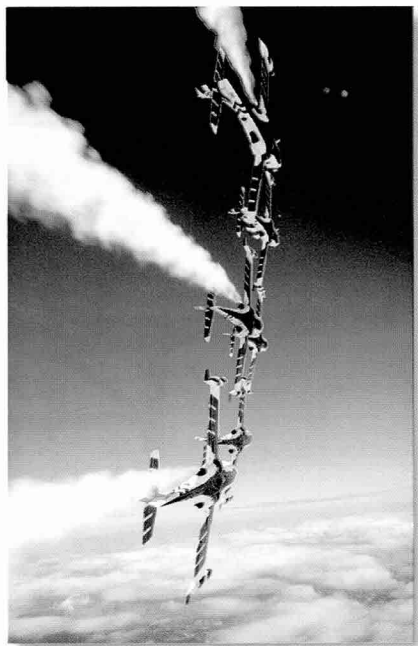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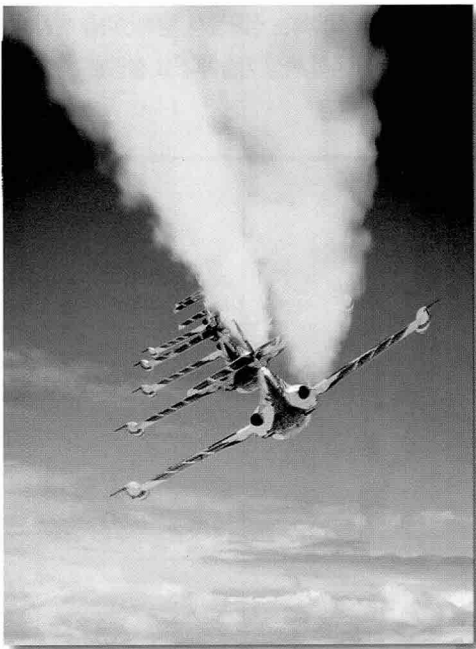
우리 나라의 에어쇼는 1953년 10월 1일 사천비행장에서 4대의 F-51 무스탕 항공기로 실시한 특수비행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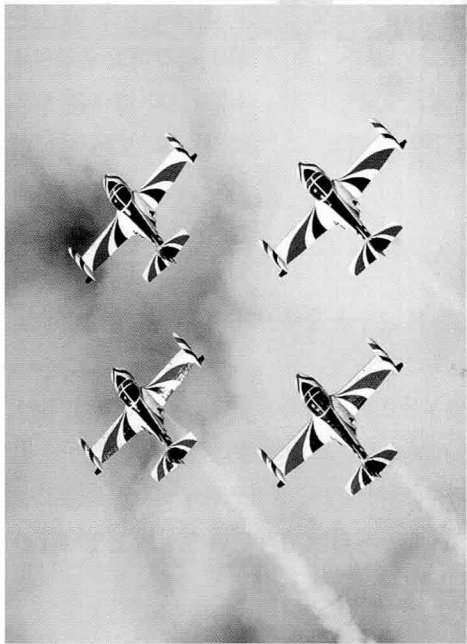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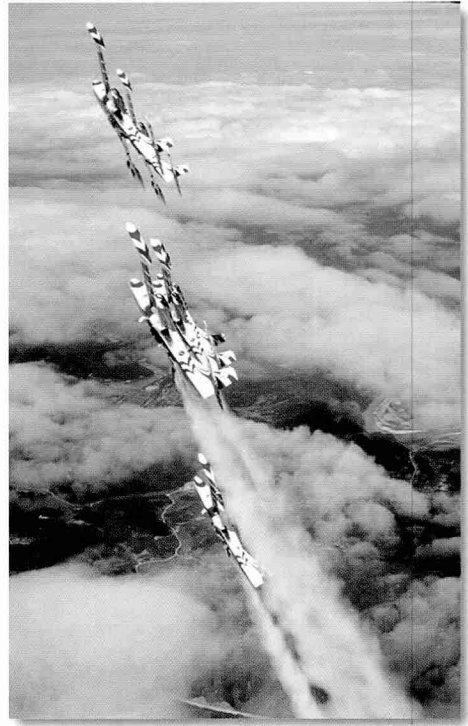
국군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일반인에게 선보였던 이 비행은 1958년까지 매년 국군의 날에 1회씩 실시되었으며, 그 후 4대의 F-86 항공기로 구성된 「블루세이버(BLUE SABRE)」팀이 창설되면서 본격적인 에어쇼가 시작되었다.

「블루세이버」는 1962년 한강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경축 행사에 참가하여 전투조종사의 비행기량을 과시하며 다양한 편대기동을 선보였는데 이 때가 현재 우리 나라 에어쇼의 태동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팀명인 「블랙이글」은 1966년 당시 공군의 최신예 기종인 F-5A가 특수비행에 투입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1978년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던 당시 「블랙이글」은 매





년 에어쇼 실시 3~4개월전 팀이 구성되어 활동하였으며 에어쇼 후에는 소속 비행대대로 돌아가는 형식을 취하는 비상설 특수비행팀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공군 전체의 보유기종을 선보이기 위하여 다수 기종 대규모 편대군의 공중분열이 에어쇼를 대신하게 됨으로써 「블랙이글」의 활동은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었다.

이후 에어쇼팀의 필요성을 절감한 공군은, 1994년 6대의 A-37B 항공기로 상설 전문특수비행팀으로서의 「블랙이글」을 재창설하게 된다.

팀 재창설 이후 「블랙이글」은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1996년 서울에어쇼, 1997년 국제 마라톤 대회, 1998년 건군 50주년 기념행사 및 서울에어쇼, 1999년 공군 창군 50주년 기념행사, 2000년 청주 국제항공 엑스포 등 각종 국제 행사에서 성공적인 에어쇼를 펼쳐보임으로써 대한민국 조종사의 우수한 비행기량을 선보임과 아울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어쇼팀으로서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